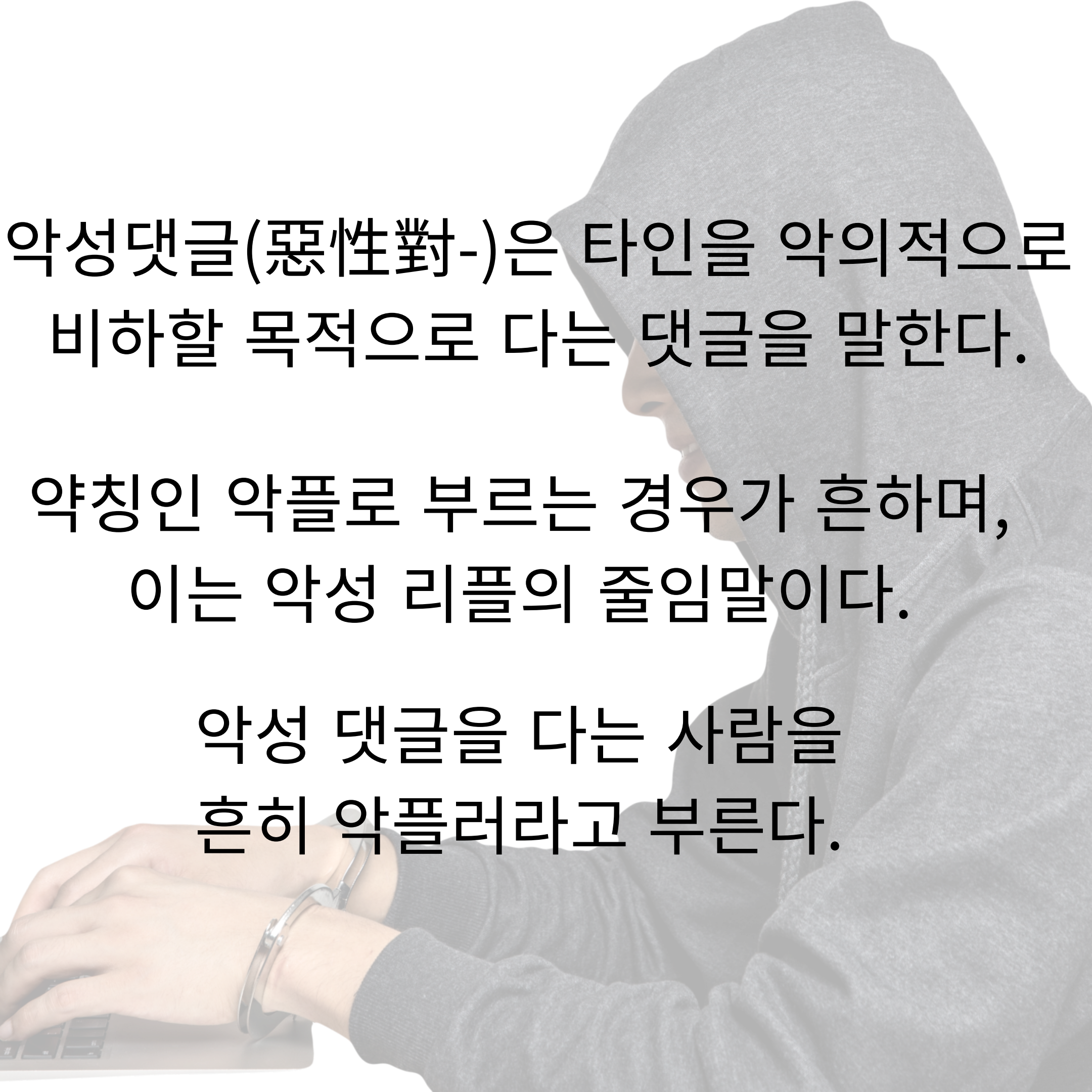


강영인이 선택한 사회 이슈

악플 (악성댓글)

10901 강영인

A person wearing a grey hoodie and handcuffs is shown from the side, typing on a laptop. The image is semi-transparent, serving as a background for the text.

악성댓글(惡性對-)은 타인을 악의적으로
비하할 목적으로 다는 댓글을 말한다.

악칭인 악플로 부르는 경우가 흔하며,
이는 악성 리플의 줄임말이다.

악성 댓글을 다는 사람을
흔히 악플러라고 부른다.

악플은 당사자를 정말 불쾌하게 만든다.
주로 정치인들, 연예인들이 악플에 많이 시달린다.

악플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는
연예인이 생기는 안타까운 경우도 정말 많다.

그래서 이들은 악플에 대해 불쾌감을
토로하고 인권침해라고 주장한다.

BUT

정의롭지 못한 악플과 정당한 비판을 구별할 기준은 없다.
법적으로든 현실적으로든 기준은 만들기 어렵다.
그래서 처벌 받아야 할 사람이 처벌을 못 받는 경우가 있다.

악플에 대한 완벽한 해결 방안은 없다고 본다.
무슨 방안을 꺼내와도 악플 달 사람들은 기어코 기어 나와서
악플을 달거라고 본다.

그래도 사소한 노력들이라도 해야 할 것 같다.
항상 올바른 댓글 문화를 실천하고
악성 댓글을 다는 사람이 있으면 저지해야겠다.

